

# 나쓰메 소세키의 ‘탐정’인식

## - 소설 작품과 강연을 중심으로 -

김대양\*  
daeyang76@hanmail.net

### <目次>

- |                   |                |
|-------------------|----------------|
| 1. 들어가며           | 3. 강연에서의 탐정 인식 |
| 2. 소설 작품에서의 탐정 인식 | 4. 나오며         |

主題語: 나쓰메 소세키(Natsume Sōseki), 강연(address), 직업(occupation), 탐정(detective), 경찰(The police)

## 1. 들어가며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 : 이후 소세키) 사후 100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작품은 늘 새롭게 읽히고 있다. 그만큼 소세키의 작품은 현대성을 지녔다고 말할 수 있다. 현대는 직업이 세분화 되어서 직업의 수도 많아졌다. 소세키의 텍스트는 ‘직업의 실험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러 유형의 직업을 지닌 등장인물을 설정해왔다. 소세키의 직업관은 문명관(文明觀), 금전관(金錢觀)과도 결부되어 주목된다. 소세키는 소설 작품과 강연에서 직업에 관한 언급을 자주 하고 있는데 이는 그가 산업혁명 이후의 빅토리아시대 말기에 영국 유학을 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근대 자본주의 사회는 산업이 발달하면서 직업도 다양해졌다. 이러한 산업혁명 이후의 서구의 근대 체험이 동시대의 다른 작가들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소세키의 소설 작품 속에는 교사, 학자, 예술가 등 정신적인 직업을 가진 그룹과 실업가, 인력거꾼 등 영리추구나 육체노동을 기반으로 한 직업군이 나온다. 이 두 그룹에 속하지 않는 이색적인 직업으로서 탐정이라는 직업도 나온다. 탐정은 소설 작품뿐만 아니라 강연에서도 자주 언급하고 있어 주목된다.

지금까지 소세키의 직업 인식에 관한 일본의 연구로는 세누마 시게키(瀬沼茂樹)<sup>1)</sup>의 『나쓰

\* 제주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강사

1) 瀬沼茂樹(1970)『夏目漱石』東京大学出版会, pp.196-199. 이 저서는 소세키의 사상을 전체적으로 통일성

메 소세키(夏目漱石)와 고모리 요이치(小森陽一)의 「나쓰메 소세키에 있어 문학의 보편성(夏目漱石における文学の普遍性)」이 있다. 한국의 연구로는 장남호<sup>3)</sup>의 「나쓰메 소세키의 후기 작품 연구·강연집을 중심으로」, 구현숙<sup>4)</sup>의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의 직업관」 등이 있다. 이들 연구는 강연 「도락과 직업(道樂と職業)」(1911)과 연계해 소세키의 ‘자기본위(自己本位)’ ‘자연관(自然觀)’에 입각한 소세키의 직업관에 관한 연구이다.

종래의 연구에 대해 윤혜영은 “기존의 선행연구는 모두 소세키의 실생활에 있어서의 직업관에 주목한 것으로, 메이지·다이쇼 시대의 직업 양상과의 관련이나 소세키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직업에 대해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즉 ‘자기본위’에 입각한 소세키의 직업관만이 두각 될 뿐 그의 문학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직업 및 그 의미에 대한 분석은 그다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sup>5)</sup>고 지적했다.

본고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볼 탐정이라는 직업에 대한 작가의 인식을 살펴본 선행연구는 한국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지금까지 ‘소세키의 탐정 인식’에 관해서는 직업 인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분석 혹은 콤플렉스로 보는 견해와 ‘소세키는 탐정을 싫어한다(漱石の探偵嫌イ)’라는 것과 연관시켜 소세키의 심리를 분석한 연구가 대부분이다.<sup>6)</sup>

이러한 점을 착안하여 본고에서는 소세키의 중·장편소설 작품<sup>7)</sup>과 강연 「문예의 철학적 기초(文芸の哲學的基礎)」를 연계하여 직업으로서의 탐정 인식에 대해 살펴보는 것으로서 다

있게 분석해 놓은 것이다. 총 7장 중 제5장은 「사회와 자신(社会と自分)」으로 소세키의 직업관을 소개하고 있다. 타인본위로서는 성립하기 어려운 직업, 자기본위(도락본위)가 아니면 성공할 수 없는 직업을 소세키의 사상으로 체계적으로 논하고 있고 그의 직업관에 나타난 모순점도 지적하고 있다.

- 2) 고모리 요이치(2012) 「나쓰메 소세키 문학의 보편성」 『한국학연구』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pp.7-31. 소세키는 자기본위와 타인본위를 구분하고 있으며 이는 적극적 개화와 소극적 개화의 구분과, 나아가 도락과 직업의 구분과도 겹친다고 지적하고 있다.
- 3) 장남호(2002) 「나쓰메 소세키의 후기작품 연구·강연집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pp.29-50. 이 논문은 소세키의 1911년 관서지방의 강연과 1915년에 학습원에서 행한 「나의 개인주의(私の個人主義)」 강연을 결부시켜 소세키의 사상을 고찰한 논문이다.
- 4) 구현숙(2007)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의 직업관」 『日本文化研究』 제24輯, 동아시아일본학회, pp.353-368
- 5) 윤혜영(2011) 「소세키를 통해 보는 메이지·다이쇼의 시대상 연구」 『日本文化學報』 제56輯, 한국일본문화학회, pp.273-288
- 6) 소세키에게 피추적망상(被追跡妄想, 探偵コンプレックス)이 있었던 것은 아내 교코(鏡子)의 『소세키의 추억(漱石の思ひ出)』과 소세키 자신의 단편( 단片)에 의해 널리 알려졌다. 이것을 ‘병(病氣)’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아내가 처음이었고, 정신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소세키 연구자들이 있다. ‘탐정’이라는 말을 사용한 소세키의 작품은 『고양이』 『춘분이 지날 때까지』 『풀베개』 『명암』 『취미의 유전』 『도련님』 등 있다. (三好行人(1999) 『夏目漱石事典』 学燈社, p.182.)
- 7) 연구대상 작품은 『나는 고양이로소이다(吾輩は猫である)』(1905.1-1906.8) 『도련님(坊っちゃん)』(1906.4) 『풀베개(草枕)』(1906.9) 『태풍(野分)』(1907.1) 『우미인초(虞美人草)』(1907.6-10) 『갱부(坑夫)』(1908.1-4) 『산시로(三四郎)』(1908.9-12) 『그 후(それから)』(1909.6-10) 『문(門)』(1910.3-6) 『피안 지나기까지(彼岸過迄)』(1912.1-4) 『행인(行人)』(1912.12-1913.11) 『마음(こころ)』(1914.4-8) 『미치쿠사(道草)』(1915.6-9) 『명암(明暗)』(1916.5-12)이다.

른 연구와 차별화된다. 소세키가 탐정이라는 역할을 직업으로서 바라보고 있다면 그 배경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탐정이라는 직업에 대한 담론을 진지하게 펼치는 문맥으로부터 작가의 내면적 상흔을 도출하고자 한다.

## 2. 소설 작품에서의 탐정 인식

소세키는 소설 작품에서 직업에 관한 언급을 자주 하고 있다. 특히 탐정이라는 직업에 대한 작가의 인식이 잘 나타나 있다. 소세키의 직업으로서 탐정 인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대 배경이 되는 메이지 시대의 ‘탐정’이라는 직업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탐정이란 ‘은밀히 상대의 비밀사항이나 사정 또는 범인의 죄상을 추적하여 알아내는 일 또는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뜻한다. 일본에서는 메이지(明治) 20~30년대 사이에 사립탐정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순경과 형사를 ‘탐정’으로 불리기도 했다.<sup>8)</sup>

‘탐정’이라는 직업이 성립된 것은 유럽이나 미국 등은 산업혁명 이후로 볼 수 있지만, 일본에서는 메이지유신 이후라고 할 수 있다. 메이지유신 이후 산업이 급속히 발전하여 주식회사의 설립이나 증권거래소의 증권 거래가 활발해지고 기업의 신용이 산업 발전의 중요한 문제가 됨에 따라 메이지 20~30년대(1887~1896) 사이에 홍신소 등이 서서히 설립되기 시작하다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전쟁 후의 경제부흥과 함께 홍신소, 탐정사가 급성장하게 되었다. 탐정이 되는 일은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퇴근시간 이후나 주말 등을 이용해 탐정을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탐정 직업과 관련된 불법적인 사건들과 문제가 계속 증가했다.<sup>9)</sup>

일본에서 최초로 탐정사무소를 설립한 것은 1889년에 니혼바시(日本橋)의 사족이었던 미쓰나가 모모타(光永百太)가 자본금 1000엔으로 설립한 것을 말한다. 1895년에는 이와이 사부로(岩井三郎)도 탐정사무소를 창업했다. 그리고 1891년 5월 21일 「아사히신문(朝日新聞)」에서 ‘제국탐명회(帝國探明會)’라는 기업이 “사기꾼이나 도둑의 소재를 조사한다. 타인의 행동 조사를 실시한다(詐欺師や盗人の所在を調べる。他人の行動調査を実施する。)”는 광고도 찾아볼 수 있다.<sup>10)</sup> 이처럼 당시 탐정은 부업(副業)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며 비록 민간 직업이라고 하더라도 근대 국가의 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지만 사회적 부작용과 개인

8) 日本大辞典刊行会(1980)『日本国語大辞典』第7巻、小学館、p.283

9) 강영숙(2006)「일본의 탐정업계의 실태와 탐정업법에 관한 연구」『한국민간경비학회보』제8호, pp.333-334

10) <https://ja.wikipedia.org/wiki/%E6%8E%A2%E5%81%B5> (2017.6.20.)

사생활 침해 등의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

소세키의 탐정 인식의 양면적인 모습은 그의 강연과 작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탐정은 문명의 저주다”<sup>11)</sup>, “탐정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동안은 인간의 자격이 없다”<sup>12)</sup>라고까지 서술하고 있는 반면에 작품에서 주인공이나 화자를 종종 탐정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여 부조리를 고발하고 있다. 특히 『나는 고양이로소이다』에서는 고양이를 인간들의 관찰자(감시의 시선=탐정)로서 인간들을 풍자, 비판하는 화자로서 활용한다.

소세키의 작품에 등장하는 남성 인물들의 직업을 살펴보면 교사, 문학가, 예술가, 철학자, 실업가, 인력거꾼 등이 나온다. 그리고 직업 자체를 갖기를 거부하는 인텔리 실업자인 ‘고등유민’<sup>13)</sup>이 종종 등장한다. 여성의 경우는 전업주부와 여학생이 나온다. ‘탐정’이라는 직업의 비열성도 폭로된다. 탐정은 실업가나 권력에 붙어 기생하는 저열하고 몰인정한 직업으로 언급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탐정의 문제는 소세키의 작품 속에서 그 모습을 드러낸다.

다음은 작품 『나는 고양이로소이다』에 나타난 탐정 인식이다.

세상에 탐정이나 고리대금업자만큼 천박한 직업도 없을 것이다. (4장, p.134)

탐정이란 작자들은 고등 교육을 받지 못한 탓인지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하니, 한심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바라건대 조금은 조심과 배려라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중략) 듣자 하니 그들은 없는 죄와 사실을 날조하여 무고한 시민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일도 한다지 않는가. (10장, p.397)

“남의 의지를 강요하는 것이 탐정이라. 탐정이란 도저히 사람과 동류라 할 수 없지. 탐정이란 직업은 남의 눈을 속이는 한이 있어도 자기만 좋으면 그만이라는 장사니까. (중략) 오늘날 사람들은 자나 깨나 어떻게 하면 자신에게 이득이 되고 어떻게 하면 손해가 되는지 생각할 뿐이기 때문에, 탐정이나 도둑처럼 자각심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 (중략) 탐정은 문명의 저주다.”

(11장, pp.501-504)

11) 夏目漱石(1966)『漱石全集』第1卷、岩波書店、p.504

12) 夏目漱石(1966)『漱石全集』第11卷、岩波書店、p.77

13) 소세키의 소설에는 이렇게 뚜렷한 직업도 없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놀며 생활하는 인물이 자주 등장한다. 『나는 고양이로소이다』에 나오는 메이테이(迷亭), 『우미인초』의 고노(甲野), 『마음』의 선생, 『춘분이 지날 때까지』의 스나가(須永)나 마쓰모토(松本)가 그렇다. 마쓰모토는 스스로 ‘나와 같은 고등유민’이라고 칭한다. 고등유민은 당시의 사회문제로도 대두되었지만, 대부분 고등 교육을 받았으면서도 적당한 직업을 갖지 않고 공중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말했다. (吉田精一(1988)『解説 もっとも漱石的な作品世界』『夏目漱石全集』第5卷 それから』筑摩書房、p.626)

위의 인용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탐정은 권력에 빌붙어 남의 사생활을 들추며 생계를 꾸려 가는 혐오스러운 존재로 등장한다. 탐정과 함께 자본주의가 낳은 음지로서 고리대금업을 비판하고 있다. 작품에서는 탐정과 고리대금업자에 해당하는 인물을 설정하지는 않았다. 소세키에게는 탐정과 고리대금업이라는 직업과 그 직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보인다. 이런 직업은 소매치기, 도둑, 강도와 같은 경우로서 도저히 인간으로서 상종할 수 없고, 몰인정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소세키에게 있어서 탐정은 타인의 고통 따위에는 관심이 없고 타인의 눈을 속이며 자신에게만 이익이 되는 행동을 하는 직업으로 비판 대상으로 삼고 있다.

다음은 작품 『행인』과 『피안 지나기까지』의 내용이다.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고 남을 시험하다니 탐정도 아니고.”

(지로 왈, 『행인』「형」25장, p.480)

“원래 탐정이란 세상의 표면에서부터 점차 바닥으로 파고드는 사회의 잠수부 같은 존재인지라 그만큼 인간사의 불가사의를 파악할 수 있는 직업도 드물 것이다. 게다가 그들은 그저 남의 어두운 면을 관찰할 뿐 스스로 타락할 위험성은 전혀 없으니 나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어쨌라, 그 목적이 남의 죄악을 폭로하는 것인 만큼 애초부터 누군가를 함정에 빠뜨리는 의도를 지닌 직업인 것일”

(게이타로 왈, 『피안 지나기까지』「정류소」1장, p.44)

위의 인용문에서 소세키가 탐정이라는 직업이나 행위에 대해 얼마나 혐오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탐정과 탐정을 고용한 사람도 소세키는 같은 부류로 보고 있다. 이 세상은 돈으로 뒤흔들 수 있다는 생각과 권력에 조종당하는 탐정 역시 돈만 주면 무슨 짓이든지 하는 직업으로 소세키는 제시하고 있다. 자신들에게 이익이 된다면 남을 짓밟고 무슨 행동이든 하는 직업으로써 소세키는 탐정, 고리대금업자, 실업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실업가에 대한 불쾌를 표방하는 것은 근대와 전근대의 가치관의 경계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소세키의 인식이 문명비평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문명비평은 소세키의 문학에 있어서 중요한 키워드가 된다. 일본의 근대 제도의 하나로 받아들여진 자본주의가 정정유착이라는 병폐를 낳고 배금주의라는 속물성으로 치닫는 타락성에 대해 소세키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근대는 오로지 개인의 이익만을 우선시하고 상대의 입장은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것이 소세키의 인식인데, 소세키는 탐정을 같은 선상에서 놓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의 <표 1>은 탐정의 용어가 등장하는 작품과 그 작품 속 탐정의 이미지에 대해 살펴본 것이다.

&lt;표 1&gt;

대상 작품	탐정 용어 사용빈도	긍정적 이미지	부정적 이미지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36회	X	O
『도련님』	1회	X	O
『폴베개』	7회	X	O
『태풍』	2회	X	O
『우미인초』	0회	-	-
『갱부』	0회	-	-
『산시로』	0회	-	-
『그 후』	0회	-	-
『문』	0회	-	-
『피안 지나기까지』	17회	X	O
『행인』	1회	X	O
『마음』	0회	-	-
『미치쿠사』	0회	-	-
『명암』	7회	X	O

<표 1>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소세키의 작품에서 탐정이라는 용어의 사용빈도가 눈에 띄는 작품은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피안이 지나기까지』 『폴베개』 『명암』 등이 있다. 물론 사용빈도와 상관없이 소설 속에 묘사된 탐정은 긍정적인 이미지는 없으며 부정적인 이미지로만 묘사되고 있다.

탐정의 문제는 소세키의 작품 도처에서 언급되며 그 모습을 드러낸다. 특히 전기 작품에 해당하는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폴베개』 『태풍』 등에 탐정이 두드러지게 등장하며 논하는 장면이 많다. 그 이유는 1910년에 있었던 소세키의 ‘슈젠지의 대환(修善寺の大患)’을 경계로 작품의 성격이 다른 양상을 보이기 때문으로 보인다.<sup>14)</sup>

소세키의 처녀작인 『나는 고양이로소이다』에서는 특히 탐정에 대한 묘사가 36회로 다른 작품에 비해 가장 많다. 『나는 고양이로소이다』에서 탐정에 대한 묘사는 권력에 빌붙어 사는 혐오스러운 대상이며, 탐정과 함께 고리대금업도 비판하고 있다. 탐정은 흥신소와 관련이 있으며, 고리대금업은 은행과 관련이 있다. 소세키는 흥신소나 은행을 올바른 직업으로 인식

14) 슈젠지의 대환 전(前)의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소세키 특유의 문명 비평적 시선이라 할 수 있다. 세태 비판, 문명 비판, 사회와 개인과의 모순 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반면에 슈젠지의 대환 이후의 작품에서는 문명 비평적 시선은 줄어들고 개인의 불안과 고독, 갈등과 고뇌, 애고이즘 등의 탐구가 깊이를 더한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둑, 강도와 같은 선상에 놓고 있다. 『풀베개』에서의 탐정은 “오 년이나 십 년을 사람의 엉덩이에 탐정을 붙여서 사람이 뛰는 방귀를 계산하는”(11장, p.148) 타인의 개인적인 생활까지 깊숙이 관여하여 개인의 자유와 생각을 억압하는 인물로 현대문명의 폐습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행인』 『괴안이 지나가기까지』에서는 탐정을 고용한 실업가를 내세우고 있다. 여기서 탐정은 자본주의 사회와 밀접하며 근대 자본주의 제도 하에서 새롭게 출현한 탐정에 대한 소세키의 인식은 시대상의 반영으로 이해된다.

결국 소세키의 소설 작품 속에 묘사된 탐정은 탐정이라는 직업으로서의 역할은 존재하지만 인물도 이름도 부여되지 않는 존재의 공허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비인간적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세계에서는 소외된 존재인 것이다.

### 3. 강연에서의 탐정 인식

소세키는 평소 문예와 직업에 대해 깊이 성찰해 온 작가이다. 소세키는 오오무라 세이가이(大村西崖)<sup>15)</sup>의 부탁으로 평소 자신의 문제의식으로 삼았던 주제를 연제(演題)로 삼고 「문예의 철학적 기초(文芸の哲學的基礎)」라는 주제로 연설을 했다.

「문예의 철학적 기초」는 1907년 4월 20일에 도쿄미술학교(東京美術學校) 문학회의 개회식에서 행한 강연으로 소세키가 1907년 4월 교수직을 사퇴하고 아사히신문사에 입사해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강연이 끝난 후 소세키는 강연 내용을 정리하여 1907년 5월 4일부터 6월 4일까지 「도쿄 아사히신문(東京朝日新聞)」에 총 27회에 걸쳐 게재한다.<sup>16)</sup> 그만큼 그의 심중에 깊게 자리한 문제의식임을 말해주고 있다.

소세키는 강연문 서두에 “내가 특별히 나의 새로운 직장인 신문사를 위해서 새롭게 기초한 논문이라고 보아도 크게 지장은 없을 것이다. 이런 기회를 이용해 아사히신문의 사원으로서 붓을 들어 독자를 만나보려고 하는 내가 「입사의 변(入社の辭)」<sup>17)</sup>에 이어서 평소 가진 문예에 관한 소신을 대중에게 펼쳐 보여서 나의 입각지(立脚地)와 포부를 분명하게 하는 것은 사원인 내가 천하의 공중(公衆)들에 대해 가진 의무일 것”<sup>18)</sup>이라고 밝히고 있다. 평소 소세키의 문예

15) 오오무라 세이가이(大村西崖, 1868-1927) 메이지(明治)·다이쇼(大正) 기의 미술사가(美術史家)였다. 동경미술학교 조각과를 나와 1897년 동경미술학교 교수가 되어 동양미술사를 강의했다.

16) 오사카 아사히신문(大阪朝日新聞)에는 1907년 5월 9일부터 6월 4일까지 총 27회에 걸쳐 게재된다.

17) 1907년 4월에 도쿄제국대학과 제1고등학교를 사직하고, 5월 3일 「입사의 변(入社の辭)」을 발표한다.

18) 夏目漱石(1966)『漱石全集』第11卷、岩波書店、p.31

에 관한 소신뿐만 아니라 직업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말할 수 있다.

소세키는 강연에서 탐정을 언급하며 탐정을 직업으로 하고 있는 한 인간의 자격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은 강연 「문예의 철학적 기초」의 일부분이다.

여러분들은 탐정이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보고, 친구로 사귄 만한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략) 탐정이라는 순수한 직무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탐정들은 단지 사실을 밝혀줄 매개물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탐정이라는 직업에는 진실을 발휘한다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아까울 정도이지만, 우선 그 직업의 본분을 말하면 가장 열등한 의미의 진(眞)을 탐구한다고 할해도 큰 지장은 없을 것입니다. (중략) 도덕도 없을뿐더러 미감(美感)도 없습니다. 장엄이라는 이상은 애초에 없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것을 보아도, 어떠한 선(善)을 대하여도, 또는 어떠한 숭고의 경우에 접해서도 전혀 느끼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한 느낌이 있다면 탐정 따위를 할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탐정을 할 수 있는 까닭은 인간이 가진 이상(理想)의 4분의 3 정도가 완전히 없어지고 남은 4분의 1이라는 가장 저열한 것이 무턱대고 왕성하게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간은 전혀 인간적인 가치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중략) 그러나 그들 직업은 원래 기계를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도 애초부터 그럴 작정을 하고, 그것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동안은 인간의 자격이 없다고 단념하고 있어야 합니다. (「문예의 철학적 기초」, pp.76-77)

소세키는 강연 「문예의 철학적 기초」에서 문예가의 자질로서 지(知, 지식)·정(情, 감정)·의(意, 의지)를 꼽고 있고 문예가의 이상(理想)을 미(美, 아름다움)·진(眞, 진실)·애(愛, 사랑)·장(莊, 장엄함) 네 가지로 나누고 있다. 소세키가 말하는 문예가의 이상인 미·진·애·장의 네 가지는 각각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서로 절충하며 기능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 중 현대 문단(당시, 일본 문단을 말함)의 타락은 진(眞)이라는 하나의 이상을 지나치게 편중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소세키의 비판의 핵심은 진실 이외의 이상을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 이외의 다른 이상은 철저히 파괴해버리는 데에 있다.<sup>19)</sup> 이러한 탐정적 태도는 병적인 현상으로 그 명맥을 오래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 진(眞)에 편중되는 사례로써 열등한 의미의 진실만을 탐구하는 ‘탐정’에 비유하며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소세키는 탐정이 가능한 인간(=탐정)은 인간으로서 통용되지 않고, 탐정이라는 직업을 하고 있는(=탐정) 한 인간의 자격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즉 탐정은 인간실격(人間失格)

19) 소세키는 진실만을 중시하고 다른 이상은 철저히 파괴해버리는 것으로 탐정을 예로 들고 있고, 소설 작품으로는 셰익스피어의 『오델로(Othello)』(소세키는 이 작품을 불유쾌한 작품이라고 비평함), 입센의 『헤다 가블러(Hedda Gabler)』, 모파상의 『목걸이(La Parure)』, 졸라 작품 등에 비유하며 비판의 대상을 확장한다. (夏目漱石(1966)『漱石全集』第11卷, 岩波書店, pp.72-76 참조)



이라는 것이다.

다음은 강연 「문예의 철학적 기초」의 일부분이다.

인간이 아니라 기계라고 한다면 어떤 경우에는 쓸모가 있겠지요. 쓸모가 있기 때문에 경시청(警視庁)에서도 많은 탐정들을 고용하여 월급을 주면서 그들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문예의 철학적 기초」, p.77)

위의 인용문에서 소세키는 탐정을 고용하고 부양하는 곳은 경시청(警視庁)이라고 말하고 있다. 경시청은 경찰 조직 및 경찰본부를 말한다. 경찰을 관리하는 경시청에서 탐정을 고용하고 부양한다는 것은 탐정에게 경찰의 보조 역할을 부여함과 동시에 경찰과 같은 권한을 부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소세키는 탐정과 경찰을 같은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이것은 마치 작품 『폴베개』에서 나오는 “탐정? 과연 그렇구먼. 그럼 경찰이군 그래. 대체 경찰이니 순사니 하는 따위, 무슨 도움이 돼. 없으면 안 되는 거요”(『폴베개』11장, p.518)라는 내용을 연상시키는 대목이기도 하다.

다음은 『나는 고양이로소이다』의 일부분이다.

“경찰은 예사 직업이 아닌 걸 어찌나”

“물론 예사 직업은 아니지. 예사 직업보다 훨씬 못한, 탐정이라는 아니꼬운 직업이지”

(9장, p.377)

경시청 탐정이라면 남의 물건이라도 상관하지 않고 짹 찢어버릴지도 모르겠다. (10장, p.397)

소세키는 당시 경찰을 탐정과 같은 카테고리 안에 넣고 비판 대상으로 삼고 있다. 소세키는 근대의 경찰을 국가권력을 통해 국민을 강압적으로 통치하는 존재로 보았다. 즉 당시 경찰은 권력의 지배자로서 피지배자의 일상생활을 간섭하고 감시하는 존재로 근대성과 폭력성을 띠고 있다.

결국 ‘(탐정=경찰) ⇒ 인간실격’이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 소세키가 말하는 인간실격에 해당하는 직업은 탐정과 경찰이고 모두 동일한 표준을 가지고 논하고 있다. 소세키는 개인의 자유를 말살하고 억압하려는 수단으로 등장한 ‘탐정’이란 근대문명의 소산물에 정신적 히스테리 증상까지 보였다.

이러한 소세키의 인식은 당시 탐정과 경찰이라는 직업을 부정적인 이미지로 더욱 부각시켜 보여주는 효과를 지닌다. 탐정 인식의 배경에는 경찰이 존재했고, 이 두 직업은 자본주의

사회에 내재한 근본적인 불화, 나아가 근대성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어 소세키에게 비판 대상의 기제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4. 나오며

지금까지 나쓰메 소세키의 소설 작품과 강연을 연계하여 탐정 인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직업이라는 것은 시대를 비추는 하나의 거울이기도 하다. 소세키의 텍스트에서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직업들은 한 시대 또는 작가 개인뿐만 아니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가치관과도 긴밀하게 이어진다. 소세키는 소설 작품뿐만 아니라 강연에서도 탐정이라는 이색적인 직업을 자주 언급하고 있어 주목했다. 탐정이라는 직업의 역사적 의미를 고찰함에 있어 이것이 비록 민간 직업이라고 하더라도 근대 국가의 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또 사회적 부작용과 개인 사생활 침해 등의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먼저 소설 작품에서 묘사되고 있는 탐정은 실업가나 권력에 붙어 기생하는 저열하고 몰인정한 직업으로 언급되고 있었다. 탐정과 함께 자본주의가 낳은 음지로서 고리대금업도 비판하고 있다. 탐정과 고리대금업이라는 직업과 그 직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탐정을 고용한 실업가까지 외연이 확장된다. 이것은 소세키의 인식이 문명비평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일본의 근대 제도의 하나로 받아들여진 자본주의가 정경유착이라는 병폐를 낳고 배금주의라는 속물성으로 치닫는 타락성에 대해 소세키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근대는 오로지 개인의 이익만을 우선시하고 상대의 입장은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것이 소세키의 인식인데, 소세키는 탐정을 같은 선상에서 놓고 신랄하게 비판한 것이다. 그리고 소설 작품 속에 묘사된 탐정은 직업으로서 역할은 존재하되 그 존재를 느끼지 못하는 존재의 공허 그 자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비인간적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세계에서는 소외된 존재로 볼 수 있다.

강연에서도 소세키는 탐정을 직업으로 하고 있는 한 인간의 자격이 없음을 강조했다. 소세키는 진실 이외의 다른 이상을 철저히 파괴해버리는 병적인 현상을 ‘탐정’에 비유하며 비판했다. 소세키는 탐정이 가능한 인간, 탐정이라는 직업을 하고 있는 인간은 인간의 자격이 없는 인간실격이라고 진단했다. 또 소세키는 탐정과 경찰을 동일한 시각에서 바라보았다. 당시 경찰은 국가권력을 통해 지배자로서 피지배자의 일상생활을 간섭, 감시하는 존재로 탐정과 함께 소세키의 비판 대상이 되었다. 결국 소세키의 탐정 인식의 배경에는 국가의 권력을

등에 업은 경찰이 있었고, 근대 국가의 제도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소세키에게 비판 대상의 기제로 작용했다.

### 【참고문헌】

- 강영숙(2006)「일본의 탐정업계의 실태와 탐정업법에 관한 연구」『한국민간경비학회보』제8호, pp.333-334  
고모리 요이치(2012)「나쓰메 소세키 문학의 보편성」『한국학연구』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pp.7-31  
구현숙(2007)「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의 직업관」『日本文化研究』第24輯, 동아시아일본학회, pp.353-368  
김대양(2016)「나쓰메 소세키의 직업관 고찰-『산시로』와 「도락과 직업」을 연계하여-」『日本學報』제108집, pp.65-78  
윤혜영(2011)「소세키를 통해 보는 메이지·다이쇼의 시대상 연구」『日本文化學報』第56輯, 한국일본문화학회, pp.273-288  
장남호(2002)「나쓰메 소세키의 후기작품 연구-강연집을 중심으로」『인문학연구』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pp.29-50  
瀬沼茂樹(1970)『夏目漱石』東京大学出版会, pp.196-199  
夏目漱石(1966)『漱石全集』全17卷, 岩波書店  
日本大辞典刊行会(1980)『日本国語大辞典』第7卷, 小学館, p.283  
三好行人(1999)『夏目漱石事典』学燈社, p.182

---

논문투고일 : 2018년 09월 18일  
심사개시일 : 2018년 10월 17일  
1차 수정일 : 2018년 11월 06일  
2차 수정일 : 2018년 11월 13일  
게재확정일 : 2018년 11월 19일

---

---

 <要旨>
 

---

## 나쓰메 소세키의 ‘탐정’인식 - 소설 작품과 강연을 중심으로 -

김대양

직업이라는 것은 시대를 비추는 하나의 거울이기도 하다. 소세키의 텍스트에서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직업들은 한 시대 또는 작가 개인뿐만 아니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가치관과도 긴밀하게 이어진다. 소세키는 소설 작품뿐만 아니라 강연에서도 탐정이라는 이색적인 직업을 자주 언급하고 있어 주목했다.

먼저 소설 작품 속에 묘사된 탐정은 직업으로서 역할은 존재하지만 인물도 이름도 부여되지 않는 존재의 공허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비인간적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세계에서는 소외된 존재로서 작가에 의해 완전히 소멸 당했다고 보았다.

강연 「문예의 철학적 기초」에서는 탐정을 직업으로 하고 있는 한 인간의 자격이 없음을 강조했다. 소세키는 진실 이외의 다른 이상을 철저히 파괴해버리는 탐정적 태도를 병적인 현상으로 보았다. 또 소세키는 탐정과 경찰을 동일한 시각에서 바라보았는데, 당시 경찰은 지배자로서 피지배자의 일상생활을 간섭, 감시하는 존재로 탐정과 함께 소세키의 비판 대상이 되었다. 결국 소세키의 탐정 인식의 배경에는 경찰이 있었고, 근대 국가의 제도와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소세키에게 비판 대상의 기제로 작용했다.

## Perception on Detectives by Natsume Soseki

- Focusing on lectures and novels -

*Kim, Dae-Yang*

A job may function as a mirror reflecting the time period. The jobs appearing repetitively in works by Soseki closely connects not only to the values of the author alone but also to those of people who lived in the same time period. This focus has been brought up since Soseki frequently mentions the unusual job detective in both lectures and novel works.

To begin with, detectives portrayed in his novels play a role of a job, while representing emptiness itself without any name or humans assigned to its existence. Furthermore, since it is portrayed inhumanly, it is considered as completely extinguished by the author as an alienated being from the real world.

In the lecture 'The Philosophical Basis of Literature', he highlights that having detective as a job means the absence of qualification as a human being. He considers the attitudes of the detectives of destroying other ideologies besides truth as a morbid phenomenon. In addition, Soseki views detectives and the police from the same perspective. The police was his target of criticisms along with detectives, since they monitored and interfered in the daily lives of subjects of domination as they played a role for a dominator during the time period. Eventually, the existence of the police existed as a background in Soseki's perception on detectives, and for being closely related to the system of the modern nation, served as the basis of criticism target.